

667개 국내외 기업 출동... '배터리 혁신' 미래 밝힌다

인터배터리 2026 개막

14회째... 13일까지 코엑스 초격차 기술·제품 대경연 ESS 등 새 성장축 화두로 한·미 방산 긴밀 협력 모색 로봇·UAM 등 활용도 논의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배터리 산업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6'에서 외국인 참가자들이 LG에너지솔루션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배터리 산업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6'에서 참가자들이 삼성SDI 전고체 배터리 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6'이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코엑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로 14회를 맞은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다. 행사는 이날부터 사흘간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를 비롯해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배터리 전 밸류체인에 걸친 667개 국내외 기업이 참가해 최신 배터리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올해는 미국, 독일,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4개국의 정부·연구기관·기업도 참여해 글로벌 협력 논의가 진행된다. 방산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미 배터리 기술 협력과 한·독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 호주와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인터배터리에서는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배터리 산업이 직면한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재생에너지 분야가 주요 화두로 제시된다. 배터리 업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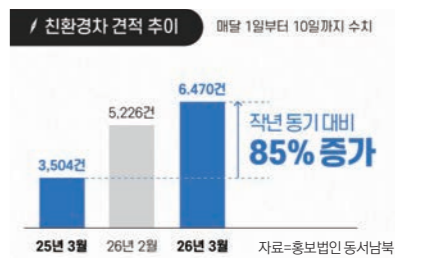
ESS 사업 확대 전략과 관련 기술 개발 동향도 공유될 예정이다.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 유럽연합(EU)의 배터리 규정 등 글로벌 통상·환경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 전략도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진다.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는 전고체 배터리와 소용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 등 미래 배터리 기술과 함께 열폭주 대응, 구조 설계, 소재 혁신 등 안전성 강화 기술도 소개된다. 방산,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배터리 활용 가능성도

조망될 예정이다. 기업 간 협력과 투자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배터리 3사의 구매 담당자가 참여하는 구매상담회를 통해 소부장 기업의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고, 벤처캐피털(VC) 초청 기업설명회(IR) 피칭 행사를 통해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기회도 제공한다. 또 배터리 잡페어를 통해 1:1 직무 멘토링 등 취업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개막식에 참석한 문신차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배터리를 '첨단 산업의 심장'이

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기차 시장 캐즘과 글로벌 통상 환경 불확실성 속에서도 신수요 확대와 공급망 재편이라는 기회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K배터리가 글로벌 선도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ESS 시장 확대와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전방수요를 확대하고, 배터리 생산세액공제 도입과 핵심광물·소재·마더팩토리로 이어지는 '배터리 삼각벨트' 조성을 통해 글로벌 배터리 제조의 허브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김선민 기자 smkim@skyedaily.com

친정부지 솟는 휘발유값 친환경차 문의 85% 급증

전체 1만1505건의 신차 견적 요청 중 친환경차가 6470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3504건) 대비 85% 증가했다. 온라인 신차 구매 플랫폼 카캡과 흥보법인 동서남북이 중동발 유가 급등에 따른 신차 구매 패턴 변화를 분석한 트렌드 나침반: 중동 리스크와 친환경차 구매편을 11일 발표했다. 친환경차 견적 요청은 처음으로 내연차(5035건)를 추월했으며 지난달(5226건)에 비해 24% 상승했다. 데이터는 3월1일부터 10일까지 수집됐다. 2월28일에 시작한 중동 전쟁이 국내 유가에 영향을 줬다. 오피넷에 따



르면 전국 평균 1696원이었던 휘발유는 10일에 1907원으로 211원 급증했고 1601원이었던 경유는 1932원으로 331원 수직 상승했다. 강남·용산·종로·중구 일대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L당 200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가장 많은 견적 의뢰가 들어온 친환경차 브랜드는 기아자동차(2026건)다. 그 뒤를 현대차(1230건)와 테슬라(947건)가 이었다. 특히 작년 순위권에 없었던 BYD가 883건을 기록하며 BMW(348건)를 누르고 4위를 기록했다. 유튜브 절감 등 경제적인 효과가 전기차 구매 이유 중 하나가 된 가운데 BYD가 가성비 전략으로 국내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온 게 주효한 것이다. 박근영 카캡 대표는 "오래 초 전기차 보조금 시행으로 구매 부담이 줄었고 중동발 유가 급등 국면까지 겹치자 친환경차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영훈 기자 yhle@skyedaily.com

삼성전자, 갤럭시 S26·갤럭시 버즈4 출시

이달 갤럭시 S26 시리즈 구매 대상 고객에 다양한 혜택 갤럭시 버즈 시리즈, 역대 최고 수준 하이파이 사운드

삼성전자는 갤럭시 S26 시리즈와 갤럭시 버즈4 시리즈를 11일부터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한국, 미국, 영국, 인도 등을 시작으로 전 세계 120여 개국에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S26 시리즈 국내 사전 판매에서 135만 대가 판매되며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사전 판매 중 최대 판매 신기록을 갱신했다. 삼성전자는 3월에 갤럭시 S26 시리즈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갤럭시 버즈4 시리즈 10% 할인 쿠폰 △정품 케이스 및 액세서리 30% 할

인 쿠폰 △60W 충전기 30% 할인 쿠폰 등을 증정하고 △월라 3개월 구독권 △갤럭시 스토어 인기 게임 스페셜 테마 8종 등을 제공한다. 할인 쿠폰은 삼성닷컴 앱에서 사용 가능하다. 60W 충전기 30% 할인 쿠폰은 갤럭시 S26 울트라 구매 고객 한정으로 제공한다. 갤럭시 버즈4 시리즈는 갤럭시 버즈 역대 최고 수준의 하이파이 사운드와 인체 공학적 설계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갤럭시 버즈4 시리즈는 고개만 움직여도 전화 수신과 디바이스 에이전트 빅스비를 제거하는 '헤드 체스츠' 기능을 새롭게 탑재했다. 갤럭시 버즈4 시리즈는 갤럭시 버즈4 프



삼성전자가 3세대 AI폰 '갤럭시 S26 시리즈'와 하이파이 사운드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4 시리즈'를 11일부터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출시한다고 밝혔다. 모델들이 '갤럭시 S26 시리즈'와 '갤럭시 버즈4 시리즈'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로와 갤럭시 버즈4 2종으로 구성되며 사전 구매 고객의 약 90%가 갤럭시 버즈4 프로를 선택하며 업그레이드된 성능에 대

한 수요가 높았다. 삼성전자는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해 △전통 문양 시리즈 △통조림 시리즈

△스레트로 게임기 시리즈 등 다양한 갤럭시 버즈4 시리즈 케이스를 출시하며 △헬리눅스 러기드 △초코송이 등 이색 콜라보 케이스도 선보인다. 특히 전통 문양 시리즈 2종은 꽃, 호랑이 등 한국 전통 문양을 현대적인 자개 디자인으로 해석해 전체 갤럭시 버즈4 시리즈 케이스 중 가장 많이 판매됐다. 3월까지 갤럭시 버즈4 시리즈를 구매한 고객은 갤럭시 버즈4 시리즈 케이스 30%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갤럭시 S26 시리즈는 AI폰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부터 갤럭시 AI, 카메라까지 완성도를 크게 끌어올린 제품"이라며 "풍성한 사운드의 갤럭시 버즈4 시리즈와 함께 갤럭시 생태계를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Advertisement for Samsung with the slogan '사람 중심 휴먼르네상스 심성으로 만들어 갑니다' (Human-centered Renaissance, creating with a human heart). It features an image of two men shaking hands and the SkyDaily logo.